

광주 시민단체 “중대재해사업장 최고 경영자 엄중 처벌을”

광산구 이주 노동자·화순 양곡공장 직원 산재 사고에 입장 “행정, 취약계층 노동자 돌보는 전담 기구 설치해야”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랐던 지역 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장 최고 경영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민노동자네트워크와 광주 청년유니온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이주민 노동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으며, 이를 뒤에는 전남 화순 양곡 공장에서도 청년 노동자

가 기계 정비 도중 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두 사건 모두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위반에 따른 산재로 보이지만 지난해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사법처리된 관련 산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안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결과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은 해

당 사업장 내 최고 경영자가 노동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 등 행정 당국도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 제정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형택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 앞 지나가는 정의연 회원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정의지역연대 회원들이 수요집회에 참가해 외교부 청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백골 어머니와 2년 딸, 생전에도 방임

오늘 검찰 송치 예정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딸이 2년 간 어머니 명의로 받아온 연금은 1400만~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제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방임 정황을 식별했다.

경찰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일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강진, 초등학교 휴게실 불...학생 등 20여명 긴급대피

18일 오전 9시 31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의 초등학교 교정에 지어진 미화원 휴게실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2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내에서 겨울 학교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20여 명과 교사 1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휴게실 50여㎡가 모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